

퓨어스토리지,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로 현대적 사용자 경험 구현...플래시어레이용 퓨리티 6.0 공개

- 연속적 복제 기술에 빌트인된 액티브 재해 복구, 통합 블록 및 파일 등 신규 기능 추가

2020 년 6 월 11 일 - 멀티-클라우드 세상에서 구독형 스토리지(storage as-a-service)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IT 선도기업 퓨어스토리지(www.purestorage.com/kr, 지사장 배성호)가 자사의 플래그십 소프트웨어인 플래시어레이(FlashArray™)용 '퓨리티 6.0(Purity 6.0)' 최신 버전을 발표했다. 현대 기업과 조직을 고려해 설계된 이번 최신 OS 는 고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전략적 소비 모델을 통해 데이터의 저장, 보안, 관리, 액세스 및 이동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퓨리티 6.0 은 스토리지 사일로 및 스프롤 현상(sprawl, 무분별한 확산)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오늘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통합 블록 및 파일 솔루션으로 현대적인 인프라를 단순화한다. 퓨어스토리지 고객들은 새롭게 출시 된 민첩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NFS 및 SMB 를 통한 통합 프로토콜 지원과 최신 연속적 복제 기술에 기반한 액티브 DR(재해복구)의 두가지 주요 신규 기능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규 기능들은 에버그린 스토리지(Evergreen Storage™) 서브스크립션 모델의 일부로 포함되어, 별도 라이선스나 기술지원 비용이 필요 없으며, 추가적인 복잡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퓨어스토리지 플래시어레이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통합 블록 및 파일 기능은 호환이 어려운 두 개의 환경을 운영할 때 발생가능한 문제와 비용을 줄여준다. 이 기능은 블록 스토리지를 주요 스토리지로 사용하지만 별도의 NAS(network-attached storage)를 필요로 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에서 운영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퓨리티 운영 환경 내 모든 워크로드들을 실행하고 동일한 데이터 레이어, 유저 인터페이스, 용량 풀을 활용하며, 퓨어스토리지의 업계 최고 데이터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연속적 복제 기능인 액티브 DR 은 서드파티 애드온 재해복구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어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고 비즈니스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이 신규 액티브-패시브 복제 기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RPO(복구 시점 목표)로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함으로써 핵심 비즈니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이제 고객들은 액티브클러스터(ActiveCluster™)를 통한 액티브-액티브 동기식 복제, 스냅샷 기반의 비동기식 복제, 동일 퓨리티 플랫폼 상에서의 연속적 복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채프먼 대학(Chapman University)의 리서치 지원 수석 시스템 관리자 제임스 켈리(James Kelly)는 “퓨어스토리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최근의 IT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교수진, 직원, 학생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었다”라며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퓨리티 6.0 은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번 신규 플래시어레이 OS 의 통합 SAN 및 NAS 기능들은 전체 블록 환경에서 운영해야 하는 초고성능 파일 기반 워크로드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또한, 퓨어스토리지의 친숙하고, 안정적이며, 클라우드와 유사한 운영 환경에서 주요 엔터프라이즈 및 리서치 워크로드와 성능이 중요한 파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VDI 를 비용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준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에 대한 요구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워크로드를 플래시블레이드(FlashBlade®)에 할당하지만, 이 외의 활용 사례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플래시어레이가 이제 모든 데이터 스토리지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WWT(세계자연기금)의 글로벌 기술 솔루션 아키텍트 제프 폰케(Jeff Fonke)는 “각 파일 서버와 데이터를 연속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유 스토리지 없이는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 성능을 타협하거나 다른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은 현대 조직에서 옵션이 될 수 없다”라며 “새로운 기능을 위한 OEM 통합 테스트를 위해 대량의 리소스가 필요한 WWT ATC(Advanced Technology Center)에서 파일 구현을 베타 테스트하기 위해 퓨어스토리지와 협력하고 있다. 플래시어레이는 주요 워크로드 및 일상적인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컨버지드 블록 및 파일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퓨리티 6.0 은 혁신을 위해 고객들이 무중단으로 즉시, 에버그린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 도입가능한 추가 기능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용 클라우드스냅(CloudSnap)을 통한 클라우드 백업 옵션 확장: 기술 프리뷰 기능- 클라우드 플랫폼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대상을 추가하여 퓨어스토리지의 공간 효율적인 스냅샷을 복제하고 오프사이트 스토리지 및 재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미리보기 기능
- 퍼블릭 볼륨 태그로 더 쉬운 인증을 위한 데이터 셋 분류
- RSA 의 이중 및 멀티 팩터 인증을 사용한 데이터 보안 및 액세스 컨트롤
-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 퓨어 1(Pure1®)의 효과적인 용량 확장 플랜
- 다음과 같은 검증된 설계로 액티브 DR 을 활용한 주요 워크로드 보호
 - VMware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지원 액티브 DR 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워크로드
 - 마이크로소프트 SQL, 오라클, SAP, MongoDB 등 주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 빔(Veeam) 및 컴볼트(CommVault) 백업 솔루션으로 퓨리티의 새로운 파일 서비스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 보호

IDC 리서치 부사장 에릭 버게너(Eric Burgener)는 "퓨어스토리지의 경우 플래시어레이에서 네이티브 파일 시스템 지원을 도입하면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제 고객들은 여러 파일 서버를 이 통합 스토리지 플랫폼에 비용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올플래시 성능, 사용 편의성은 물론 지난 10 년 동안 블록 기반 워크로드로 명성을 쌓은 차별화 된 고객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퓨어스토리지의 플래시어레이 총괄 VP 프라카시 달지(Prakash Darji)는 "유연한 소비 모델은 퓨어스토리지의 현대적 데이터 경험의 기반이 된다"라며 "퓨어스토리지 솔루션은 오늘날 환경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위해 설계돼, 근본적으로 중단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해 고객들은 최신 툴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퓨리티 6.0 은 고객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차세대 솔루션으로, 고객이 필요한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고 밝혔다.

###

퓨어스토리지 소개

퓨어스토리지는 전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의 데이터 솔루션은 SaaS,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 엔터프라이즈 및 공공 부문 기업들이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걸친 핵심 운영 환경, 데브옵스 및 현대적인 분석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퓨어스토리지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으로 고객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차세대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자사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NPS 고객 추천 지수에서 B2B 기업 중 상위 1%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세계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